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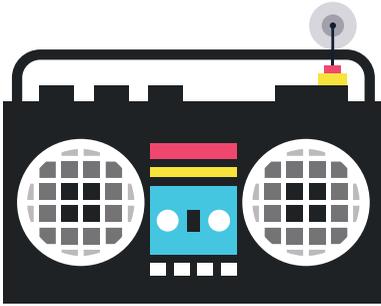


1 여자 차림을 좋아하는 성인남성 동성애자 또는 여장 남성을 지칭하는 "Drag Queen"의 어린아이 버전

최초의 이야깃거리 3 Drag kid¹ ‘놀라운 데스먼드’를 소개합니다.

"Desmond is Amazing = 놀라운 데스먼드"는 이야기 속 주인공의 실제 소셜 미디어 상에서의 '예명'이다.

엄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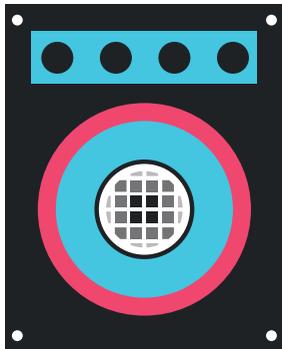


“ 우리 가족은 저와 남편, 첫째 딸,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둘째 아들인 데스먼드가 있습니다. 저희는 데스먼드를 집에서 ‘데시’라는 애칭으로 불러요. 데시는 2007년 6월 뉴욕시의 게이 퍼레이드 기간에 맨하튼에 있는 성빈센트 병원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 아이의 운명이 정해진 거라고 할 수가 있죠. 호호호...”

어렸을 때부터 데시는 다른 남자아이들과 특별히 다르지 않았다. 유일하게 달랐던 점은 이불, 수건 등과 같은 것을 몸에 두르는 것을 좋아했다는 것뿐? 가발을 쓰고 치마를 입고 엄마의 하이힐을 신은 채로 모델과 같이 걷는 걸 유난히 재밌어하던 남자 아이였다. 5살이 되던 해에 데시는 스포츠 보단 발레를 택했고 그렇게 행동 또한 남달라지기 시작했다.

6살이 되던 해, 할로윈 선물로 전해진 디즈니 겨울왕국의 공주 엘사의 파란 드레스는 데시에게 설명할 수 없을 만큼의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 그때부터가 시작이었다. 데시는 할로윈 같은 행사가 아닌 일반 쇼핑을 하러 갈 때도 공주 드레스를 입고 다니기 시작했다.

엄마



“ 처음에 저와 남편은 사실 걱정이 되길 시작했어요. 남자 아이인데 집 밖에서도 치마를 입고 다니는 아이가 염려스러워 치료사를 찾아가보기도 했어요. 치료사는 칭찬도 구박도 하지 말라는 말을 했고 자연스럽게 데시가 찾아가도록 두라고 했지요. 그때쯤 우리 부부는 이 불편함 마음의 근원지는 세상이 데시를 보고 어떻게 반응할까에 더 취중한 우리의 불안감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데시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는 대로 그냥 두기로 했어요. 아이를 외면하거나 벌을 내리지도 않았고 남자아이들 장난감을 쥐어주지도 않았어요.”

데시의 부모는 아이가 원하는 걸 선택하도록 가만 두고만 보았다. 데시는 점점 자신의 성정체성은 어떤 성별도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렀고 자신은 그냥 여자처럼 옷을 입기 좋아하는 남자아이로 여겼다. 데시의 엄마는 운동을 좋아하는 아이들을 지지하고 보살피는 여느 엄마들과 같이 이런 데시의 선택을 열렬히 지지하였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데시가 7살이 되었을 때, 데시는 자신이 매우 좋아하는 유명인 루폴의 ‘드래그 레이스’라는 쇼의 시즌 5 우승자인 징크 몬순의 뮤직비디오에 B-52 밴드그룹의 리드 싱어 프레드 슈나이더와 출연을 하게 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 후 2015년 6월 뉴욕에서 데시가 성소수자들의 퍼레이드인 ‘프라이드 퍼레이드’에 무지개색 옷을 입고 화려하게 춤을 추는 비디오가 온라인상에 떠돌면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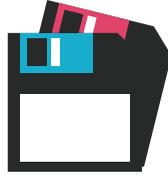
데스먼드의 지난 주요 행사들

2017년 (당시 10세)	2018년 (당시 11세)
9월 9일~10일: DragCon 2017 뉴욕시 패션쇼 런웨이 참가 함	1월 31일: Bric TV의 데일리 뉴스와 문화 방송인 112BK의 한 에피소드에 출연 호스트: Ashley Ford
9월 10일: 루폴의 DragCon 2017 뉴욕 키즈 패션쇼 호스팅 함	2월 11일: 뉴욕 패션위크 집시 스포츠 가을 2018 패션쇼 런웨이에 섬
12월 25일: 마이클 앨릭과 어니 글램의 유튜브 방송 'Pee-ew'에 출연	3월 1일: HighSchool Boys라는 가수 마들린의 노래 뮤직 비디오에 3월의 토끼 복장으로 찬조 출연
	11월 2일: “굿모닝 아메리카” TV 쇼에 초청 받아 다른 유명 Drag Queen들과 함께 출연
	12월 1일~2일: 뉴욕의 게이바 “3 Dollar Bill”에서 춤 퍼포먼스

2019년 현재, 데스먼드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

Haus of Amazing	세상에 있는 모든 드래그 킹, 드래그 퀸, 드래그 키즈들을 온라인 상 하나로 엮어주는 역할을 할 플랫폼을 구축, 운영 중
The Amaziest 매거진 (구상중)	LGBTQ 청소년들을 “The Amaziest”라고 호칭 하면서 잡지의 모든 부분을 LGBTQ 청소년들이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
유튜브 채널 시리즈	“Let’s Get Amazingly Real with Desmond is Amazing.”

지금 현재, 이제 만 12살이 되어가는 데시는 공개적으로 자신이 게이임을 밝히고 있고 이미 게이들의 세계에서는 영향력 있는 셀럽의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그의 삶은 그 나이 또래의 그 누구보다도 바쁘게 돌아가고 그 누구보다도 화려하다. 데시는 이미 멀지 않은 미래에 대한 계획을 만들어서 그걸 이루려고 고군분투 중이다. 그는 패션쇼는 물론 자신과 같은 드래그 키드용 화장품 개발, 다른 드래그 키드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상품 개발, 드래그 키드라는 이유로 괴롭힘을 받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괴롭힘 금지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로도 자신의 영향력을 뽐쳐나가려 하고 있다.



**본 이야기는 실제 인물 데스먼드 나폴리스 Desmond Napoles의 삶에 기반하여 쓰여졌습니다. 남자로 태어나 그저 독특한 옷 취향을 가졌던 아직은 어려서 올바른 사고력도 판단력도 없는 남자아이 데스먼드가 공개적인 게이가 되기까지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엔 맹모삼천지교란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성장에 있어서 주변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잘 말해주고 있죠. 데스먼드의 취미는 일반적인 다른 남자아이들과는 좀 달랐지만 그는 틀림없이 생물학적으로는 남자아이였고 현재도 남자아이입니다. 하지만 데스먼드의 경우에서 주의해서 보아야 할 점은, 이야기 속에서도 보았듯이 아직은 어린 백지장 같은 아이에게 부모가 선택한 급진적 양육환경이 성정체성 혼란을 가져다 주기에 충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6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드래그 캐릭터로 공인이 되고, 7살에 여장 남자 성인들 사이에서 공연하고 많은 시간을 그런 성인들과 보내고, 게이들에 둘러 쌓여 방송 생활을 해온 데스먼드의 게이로의 발전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만약 부모가 데스먼드가 취미로 여성 옷을 입는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얼마나 멋진 남성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훈육 방법을 택하였다면 지금쯤 데스먼드는 이런 셀럽은 될 수 없겠지만 정상적인 남자아이로 일반인의 삶을 즐기면서 크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 면에서 데스먼드의 이야기는 한 아이의 성정체성과 인생을 결정짓는데 부모의 적절한 개입과 올바른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